

김현주 “내 연기 더 성장할 수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선산’서 윤서하 역 맡아
 “현실적 캐릭터... 첫 낭만·폐쇄·푸석 캐릭터”
 “욕설 대사 처음해 봐... 카타르시스 있더라”
 “기존 정형화된 내 연기 깬다는 느낌 만족”



“아주 좋았어요. 그런 저한테 새로운 표현 방법이었던 거예요.”
 배우 김현주(47)는 넷플릭스 시리즈 ‘선산’에서 전에 없던 모습을 보여준다. 과거에 출연했던 작품을 떠올려 봐도 그렇고 최근 나온 ‘언더커버’ ‘지옥’ ‘트롤리’ 같은 드라마, ‘정이’ 같은 영화를 봐도 김현주는 감정이 밖으로 다 나오지 못하게 자제하거나 억눌렀다. 그런데 ‘선산’에서 그는 유독 히스테리하다.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다. 짜증도 내고 욕박 지르기도 하며 욕설도 한다. 김현주는 “전부터 이런 연기가 해보고 싶었다”고 했다.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대본에 욕이 있어서 ‘아, 이런 캐릭터구나’라고 생각한 뒤에

대본에 없는 욕도 하고 그랬죠. 그렇다고 제가 욕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웃음) 물론 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산’에서 맡은 ‘윤서하’가 맘에 들었던 건 아니다. 욕을 내뱉는 게 윤서하라는 사람과 들어 맞다고 판단했다. “표현에 서툰 사람이잖아요. 어떤 경우엔 감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말로 풀어나갈 감정을 그냥 욕으로 내질러 버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꽤 경력이 되는데 이런 캐릭터를 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맘에 들었죠.”
 ‘선산’은 존재조차 몰랐던 작은아버지에게 선산을 상속 받게 된 윤서하의 이야기를 그린다. 자신에게도 상속 권리가 있다며 갑자기 나타난 이복 동생, 윤서하 주변에서 발

생하는 알 수 없는 살인 사건이 뒤엉키면서 선산에 얽힌 비밀이 하나 둘 드러난다. 윤서하는 어린 시절 갑자기 떠난 아버지와 자신을 전혀 지켜주지 못한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고, 건조하고 다소 폐쇄한 삶을 사는 여자다.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남편조차 불륜 행각을 벌이는 중이다.
 “마른 가지 같은 사람인 게 맘에 들더라고요. 앙상하고 푸석한 사람이죠. 냉담하기도 하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 폐쇄적인 느낌이 강하죠. 제가 해보지 않은 캐릭터라 재밌었습니다. 예전부터 TV 드라마에서도 아주 현실적인 캐릭터를 연기해보고 싶었는데, 그런 캐릭터가 없기도 하고 저한테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연기가 정형화됐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선 기존의 제 연기를 조금은 깬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만족했고, 참 재밌었어요. 제 연기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최근 김현주는 연상호 감독과 자주 호흡을 맞추고 있다. ‘지옥’(2021)과 ‘정이’(2023)는 연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모두 맡았고, ‘선산’은 기획하고 각본을 썼다. 두 사람은 ‘지옥’ 두 번째 시즌에서도 함께한다. 김현주는 “연 감독과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 작품을 같이 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듯한 느낌”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연 감독의 세계관을 특별히 좋아하는 건 아니다”고 말하며 웃었다. 앞서 연 감독 역시 인터뷰에서 “김현주 배우가 뮤즈라고 할 순 없다”고 장난스럽게 선을 그었다.
 “저에게 있는 새로운 것을 발견해주고 제가 해보지 않은 캐릭터를 맡겨 주는 건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연 감독이 왜 저를 좋게 봐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웃음) 전 어쨌든 연 감독 작품이 재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작품을 자주 같이 하니 저희가 아주 친하고 사적으로도 자주 만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친하긴 하지만요. 저희는 만나면 작품 얘긴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농담을 많이 해요.(웃음) 그럼 연 감독과는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봐도 되는 거냐고 말했더니 김현주는 “예, 그렇게까지 아니다”며 웃었다.

김현주는 1997년 배우 데뷔 이후 쉬지 않고 연기를 해 공백기가 없었지만, 유독 최근 다작을 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매년 두 작품씩 했다고 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남성 배우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배역이 줄어드는 여성 배우로는 드문 사례다.
 “글쎄요, 전 나이를 먹고 일에 더 욕심이 생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놓치면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다는 생각에 안 해 본 건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찌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배우는 선택 받아야 하는 존재니까요. 제 경력은 시대가 바라는데도 흐름에 따라 주어진 거라고 봐요. 그래도 요즘엔 조금 쉬고 싶어요.(웃음)”



베문·투어스·라이즈·키스오브라이프·비취 美 그램미 올해 기대되는 K팝 신인 11팀 조명

미국 그램미닷컴이 올해 활약을 기대되는 K팝 신인 11팀을 조명했다.

그램미닷컴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재한 ‘2024년 주목해야 할 K-팝 신인 11팀’(11 Rookie K-Pop Acts To Know In 2024) 명단에 ‘베이비몬스터’ ‘보이넥스트도어’ ‘라이즈(RIIZE)’ 등이 포함됐다.

그램미는 베이비몬스터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선배 걸그룹들이 ‘2NE1’과 ‘블랙핑크’의 걸크러시 계보를 잇는 ‘배터 업(Batter Up)’으로 여섯 멤버를 소개했다며 2월1일 두 번째 곡 ‘스틱 인 미들’을 발표하고, 4월 초 첫 앨범(아현 합류)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보이넥스트도어에 대해선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가 방탄소년단이 소속된 하이브의 자회사 KOZ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프로듀싱한 첫 보이밴드라고 했다. 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마치 옆집에 살 수 있는 듯한 친근함과 친근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고 했다.

데뷔를 앞두고 있는 그룹 ‘아일릿’에 대해선 뉴진스(NewJeans), 르세라핌(Le Sserafim)과 함께 하이브의 또 다른 여성 강자들로 구성됐다면서 작년 리얼리티 쇼 ‘얼 유 넥스트(R U Next)’를 통해 팬층을 형성했다고 전했다.

‘키스 오브 라이프(Kiss of Life)’에 대해선 팝 파탈적인 느낌을 풍기며 Y2K R&B를 떠올리게 하는 멤버 나띠(Natty)의 부드러운 솔로곡 ‘슈가코트(Sugarcoat)’는 작년 한국에서 가장 놀라운 히트작 중 하나라고 했다.

하이브가 미국의 게펜 레코드(Geffen Records)와 손잡고 제작 중인 캣츠아이(Katseye)에 대해선, 미국 시장에 주력하는 팀이라며 다양한 민족·문화적 배경을 조망하는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로도 인사한다고 전했다.

JYP엔터테인먼트의 일본 기반 걸그룹 ‘니쥬(NiziU)’에 대해선 새로운 팀은 아니지만 작년에 첫 공식 K팝 노래를 발표했다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성장한 걸그룹이라고 했다. J팝 신에서 K팝 세계로 전환하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그램미는 올해 가요계에서 분주한

메이저 K팝 기획사는 SM엔터테인먼트라며 라이즈가 ‘러브(Love) 119’를 포함해 한국에서 여러 히트곡으로 성공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특히 2016년 이후 NCT 멀티팀 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은 K팝 대형 밴드라고 소개했다.

NCT의 마지막 유닛인 ‘NCT 위시’에 대해선 SM과 일본 에이벡스의 댄스 음악 레이블 ‘에이벡스 트랙스’의 합작팀이라며 정식 데뷔를 앞두고 지난해 ‘핸즈 업(Hands Up)’과 ‘위 고(We Go)’를 역동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전했다고 했다.

현재 멤버 24명으로 구성된 트리플에스(TripleS)에 대해선 나만의 모험 책을 고르는 느낌을 받게 한다며 ‘이달의 소녀’ 제작 초창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이은 정이 기획했다고 소개했다. 작년에만 트리플에스 산하로 다섯 개 팀이 발표됐는데, 이 과정이 팬들이 몰입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다.

6인조 투어스(TWS)에 대해선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가 ‘세븐틴(SVT)’ 이후로 9년 만에 론칭한 보이그룹이라며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인 K팝 그룹이라고 했다.

JYP와 미국 리퍼블릭 레코드가 지난해 걸그룹 결성 서바이벌 ‘A2K’를 통해 선보인 글로벌 걸그룹 ‘비취(VCHA)’에 대해선 팀이 ‘빛을 발한다’는 한국어에서 따온 것이라고 소개했다. 내달과 3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에서 예정된 트와이스 스타디움 오픈 무대를 꾸민다고 부연했다.

그램미는 “이번에 소개한 K팝 신인 그룹 중 일부는 K팝 에너지를 다른 지역으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면서 “한국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 팀이 올해 K팝 회사들의 추세”라고 말했다.

11팀 중 하이브 레이블즈 팀은 네 팀이다. 보이넥스트도어(KOZ 엔터테인먼트), TWS(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아일릿(엘리프랩)과 캣츠아이(하이브 아메리카) 등 각 산하 레이블에서 골고루 뽑혔다. SM은 투팀, JYP 역시 투팀, YG엔터테인먼트는 1팀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획사인 S2엔터테인먼트(키스오브라이프), 모드 하우스(트리플S) 소속이 각각 한 팀씩이다.

가수 아이유, 2년2개월 만에 새 음반...내달 ‘더 위닝’

톱 가수 겸 배우 아이유(U-이진은)가 2년2개월 만에 새 음반을 낸다.

30일 소속사 이담(EDAM)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아이유는 오는 2월20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더 위닝(The Winning)’을 공개한다. 아이유의 새 앨범 발매는 지난 2021년 12월29일 발매한 미니 앨범 ‘조각집’ 이후 처음이다.

앨범 타이틀 ‘더 위닝’은 지난 24일 선공개된 음원차트를 휩쓸고 있는 앨범 수록곡 ‘러브 윈스 올(Love Wins All)’을 떠올리게 한다. 이날 공개된 앨범 티저 영상에서 금발로 변신한 아이유는 조연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한다. ‘더 위닝’의 뜻과 상세 정보는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이담은 전했다.

‘러브 윈스 올’의 음원차트 호성적은 아이유가 앨범차트에서도 순항할 것임을 예고한다. 아이유는 이 곡으로 여성 가수 최초로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 멜론 ‘톱100’에서 발매 1시간 만에 정상에 올랐다. 또 지니, 벅스, 플로, 바이브(일간차트) 1위, 유튜브 뮤직(주간 차트) 1위, 아이차트 주간 누적 통합 1위 등을 차지했다.

다음달 20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발매



다.
 아이유의 ‘러브 윈스 올’은 미니멀하고 빈티지한 피아노 인트로로 운을 띄워 맥시멈 한 아웃트로에 이르는, 기승전결이 확실한 발라드다. ‘비밀’, ‘이름에게’, ‘러브 포엠(Love poem)’,

‘아이와 나의 바다’ 등 아이유의 대곡 발라드 시리즈의 바탕을 이어 받는다.
 앨범엔 좀 더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

세븐틴, 日 레코드협회 스트리밍 ‘골드’ 인증

‘핫’·‘달링’·‘박수’ 골드 추가

대세 그룹 ‘세븐틴’(SVT)이 일본 내 인기를 재확인했다.

30일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세븐틴의 정규 4집 타이틀곡 ‘핫(HOT)’과 수록곡 ‘달링(Darling)’, 정규 2집 타이틀곡 ‘박수’가 작년 12월 기준 누적 재생 수 5000만 회를 넘기며 스트리밍 ‘골드’ 인증을 받았다.

일본 레코드협회는 곡의 누적 재생 수(스트리밍 부문)를 기준으로 골드(5000만 회 이상), 플래티넘(1억 회 이상), 다이아몬드(5억 회 이상) 등으로 구분해 매달 인증을 부여한다.

이로써 세븐틴은 이 세 곡을 포함해 ‘아주 나이스(NICE)’, ‘울고 싶지 않아’ 등 총 10개의 스트리밍 ‘골드’ 인증 곡을 보유하게 됐다.

세븐틴은 일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일본 오리콘이 발표한 ‘오리콘 연간 랭킹 2023’의 ‘앨범 랭킹’과 ‘합산 앨범 랭킹’에서 미니 10집 ‘FML’로 3위, 첫 일본 베스트 앨범 ‘올웨이즈 유어스(ALWAYS YOURS)’로 5위, 미니 11집 ‘세븐틴스 헤븐(SEVENTENTH HEAVEN)’으로 7위를 차지



했다.
 각 차트에서 3개 작품은 ‘톱 10’에 올린 아티스트는 일본 국내, 해외를 통틀어 세븐틴이 유일하다.